

環境과 癌



암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

柳 東 俊

무서운 암

현대의학이 초고도로 발달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병, 癌에 의한 사망율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美國의 통계를 보면 암에 의한 사망수가 1900년에 5만명, 1940년에 20만명, 1950년에 30만명, 1965년에 40만명, 1975년에 60만명이었는데 이렇게 암에 의한 사망수가 급속도로 증가한다면 평균 4명에 1명 꼴은 암으로 죽게된다는 것이다. 2000년 가서는 약 100만명이나 될 것이라고 한다. 이웃 日本에서도 암의 사망율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즉 1940年代에는 全死亡率의 2.4% 정도이었던 것이 1970年代에는 19.2%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每年 약 4만명 정도가 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암

을 퇴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현대 의학의 절대 최고의 과제가 되었으며 암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예방의학적 조치는 가장 현명한 생활태도가 되겠다.

생활환경과 암

암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각 환자별로 지적할 수는 없지만 생활환경과 암 발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암을 비롯한 소화기 계통의 암이 많은데 비하여 구미에서는 위암의 발생율이 적고 폐암 임파선암등의 호흡기 계통의 암이 많다. 사실 구미 각국에서는 사망원인으로 암이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남성에서는 폐암이 암 발생의 제1위를 차지하며 여성에서는 유방암이 제1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와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

다. 프랑스와 남미에서는 식도암, 중미에서는 대장암등이 많고, 우리가 白人보다 생활양식이나 人種상 여타모로 상당히 비슷한 日本人과 비교하면 日本人에 있어서는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위암이 가장 많은 제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압도적으로 높은 발생율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는 남성에서 간 및 담도계통의 암이 많으며 여성에서는 자궁암이 고율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나라와 지역에 따라 암의 발생이나 빈도에 차이가 있음은 인종의 차이만으로는 설명이 안된다.

한국인이나 日本人 등이 미국에 移民하여 二世, 三世대에 이르면 위암의 발생은 감소되고 大腸癌이 증가하여 미국인의 발생빈도에 비슷해진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생활환경의 변화 섭취하는 식품 음료수 또 호흡에 포함되는 공기속의 물질등의 차이를 그 원인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사실 근대에 와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人間の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층의 연령의 人口가 증가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옛날에는 영아사기나 청소년時期에 각종의 전염병이나 결핵 등으로 死亡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으나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의

發達로 전염병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율이 근대에 와서는 현저히 감소되고 반면에 암 순환기질환 등의 소위 만성병이나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최근에 이르러 과거와 현재에는 질병의 양상인 罹患率과 死亡率이 현저하게 변천된 것이다.

관리대책

국제적으로는 國際抗癌聯盟이 있어서 암에 관한 국제 암학술 대회를 4년 간격으로 각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여 학술적인 연구발표 정보활동 및 암에 대한 계몽을 하며 또 기본적으로 암의 早期發見의 중요성, 암 환자의 적절한 치료 및 암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이러한 3대 중점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데 힘쓰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66년에 대한암협회가 설립되어 암에 관한 계몽 및 대책이 협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의과대학 종합병원 등에 부설 암 센터가 많이 발족되어 암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등록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여러 독지가들의 후원을 얻어 각종 연구와 活動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다. 한 例로 원자력 병원에서는 최근 5年 동안에 여성에게 가장 많

은 자궁암을 검진하기 위하여 6대의 특수 검진차를 전국 방방곡곡에 순회시켜 총 18만명을 검진한 결과 1만 2천명 정도의 암 환자를 발견하였으며 1973年 부터는 같은 방법으로 위암검진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또 金錫煥 박사가 설립한 중앙 암 연구소는 매년 암에 관한 연구발표를 갖는 동시에 암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도 보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한 암학회는 우리나라 암연구의 최고 권위 학회로서 암의 학술 연구 및 치료에 힘쓰고 있다.

예방대책

암의 발생요인이 복잡하고 不明 하듯이 예방조치 대책도 Multi factorial한 것이다.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방대책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행되어야 암의 예방이 성취될 것이다. 한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한다면 담배가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임은 이미 1950년대에부터 밝혀졌으며 날이 갈수록 점점 확고해지고 있다. 어린 연령층에서 흡연을 시작한 사람중에 분명히 높은 폐암의 發生率을 보이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서의 폐암의 발병율을 1.0이라고

가정할 때 14세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는 미국 및 日本에서 2.8이란 높은 숫자를 나타내며, 15~20세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는 美國에서 2.3, 日本에서는 2.0이라는 2배이상의 높은 발병율을 보이고 있다. 폐암은 치사율이 매우 높아서 발병율과 사망율이 거의 같다는 뜻이 되고 있다. 담배는 폐암뿐만 아니라 舌癌, 唇癌, 喉頭 및 食道癌 뿐만 아니라 다른 암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지고 있다. 담배를 피우면 확실히 암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世界保健機構에서도 담배에 대한 대책의 중요성을 몹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담배는 피우지 말 것이며 특히 청소년 중에서는 각자의 성장발육과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시작하지 않도록 개인의 위생과 보건교육으로서 통제하여야 좋을 것이다.

이상에서 간략히 말한것 처럼 암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환경”이 그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특히 나쁜 생활습관과 환경은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여 이를 개선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찾도록 하여야 하겠다. 좋은 환경은 암을 예방할 수 있다. <필자=경희의대

조교수·의박>